



BORNEO

“Kerana ALLAH lebih dahulu mengasihi kita!”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요일 4:19)

보르네오

행복한
어부통신

2024. 11. 15

샬롬!

코타키나발루에서 선교학교가 있는 끄닝아우, 땀분안 지역을 가려면 아주 높은 산맥(1,800m) 하나를 굽이굽이 돌아 넘어야 합니다. 이 산맥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키나발루산(4,095m)에서 남쪽으로 쪽 이어지는 이 산맥(Crocker Mountains/Banjaran Crocker)은 늘 구름 속에 웅장한 모습을 감추기 일쑤입니다. 산 아래 동네에는 해가 짹짹하게 맑고 뜨겁지만, 산맥 능선에 가까워지면 짙은 안개구름과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길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 11월에 들어서면서 땀분안 임마누엘의집 선교학교 공사 때문에 매주 두세 차례씩 이 산맥을 넘곤 하는데, 특히 오후 늦게 이 산맥을 넘을 때면 여지없이 시야를 가리는 짙은 안개와 폭우 때문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며 운전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주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15년 전, 보르네오 선교지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체력이나 순발력에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 운전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저절로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서서히 저물어가는 올 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와 보람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집 선교학교 새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학교인 땀분안 임마누엘의집에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과정에 약 80여명의 어린이들이 가족으로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3일에 한 성도의 집 헛간에 합판으로 벽을 세워 교실 2칸을 마련하여 선교학교를 열고, 이후에 3칸의 임시 교실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좁은 시설과 매달 땅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새 교실 마련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1월경에 임마누엘의집은 새 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새 학교 건물은 8개의 작은 교실과 중앙홀로 구성되며 차후에 주방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교편지를 통해 여러 차례 기도 중인 계획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새 건물은 지난 해 1월에 현장 감사예배를 드린 땀분안교회 내에 신축 중입니다. 교회와 선교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조성됨으로 선교학교는 예배당을 채플실과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교회는 선교학교 교실을 주일학교 및 성도들의 신앙 프로그램을 위해 요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학교(선한사마리아인의집, 임마누엘의집, 에벤에셀의집)는 소중한 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나날이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있으며, 12월에 1학기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미용 봉사, 선교팀의 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르네오에 새겼습니다.

지난 9/25~10/2에 대구중앙교회 드보라 이미용선교팀이 보르네오를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보르네오를 방문하여 2주간 동안 미용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전파에 구슬땀을 흘렸는데, 올해에는 사정상 8일만에 걸쳐 선교학교와 시골 교회들을 순회하며 이미용 봉사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적도의 섬 보르네오는 너무나 뜨겁고 습한 날씨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은 손길로 온종일 이곳 사람들의 머리를 매만지는 일은 흐르는 땀으로 목욕하는 듯한 수고가 따르지만 선교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새해에는 이미용선교팀과 함께 현지 봉사사역자 양성을 위한 헤어 아카데미를 개설할 꿈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은혜 가운데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잠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감사와 보람으로 올 해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해 동안 보르네오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소중한 분들에게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말에 한국을 잠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선교보고와 함께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뵙고 짧게나마 아들 노릇도 하고, 또한 군복무 중인 아들을 잠시 만나 볼 예정입니다. 선교지에 나오기 전, 한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들은 훌쩍 커서 말레이시아에서 고교를 졸업 한 후 한국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 하던 중 지난 9월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였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찬송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또한 이번 한국 방문 중에는 병원진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병원에서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매년 정기 검사 권유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아울러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정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선교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이 길을 걸읍니다^^

1.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처음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선한사마리아인의집 & 임마누엘의집 & 에베에셀의집 선교학교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3. 예배당을 건축한 Lingkakang, Nantabakan, Mesilou, Tambunan 지역에서의 선교사역을 위하여
4.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자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이 길에 동행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심으로 보르네오 섬 어부는 행복합니다 ***



E-mail : patmos@hanmail.net



카톡 ID : leeyonggap



카톡 ID를 알려주시는 기도 후원자님께는 어부동신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총회파송선교사 ☺보르네오행복한어부 ☺이웃감 드림^^